



“외국인 범죄에 강력 대응”

경찰, 10월말까지 특별치안활동 실시
집중순찰구역 기존 4곳서 9곳으로 확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인력도 증원키로

속보=제주에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10일자 4면)에 경찰이 3개월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 추진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주택에서 런모(33)씨가 주모(2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달 30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농장에서 A(51)씨가 함께 일하던 B(51)씨에게 흉기를 5차례 휘두른 뒤 도주했다. 닥새만에 자수하는 등 한달새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먼저 외국인범죄 집중순찰구역을



변창범 제주지방청 생활안전과장이 31일 외국인 범죄 특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4곳(누웨모루·제주시청·한림항·서귀포항)에서 삼무공원과 화북공업단지 등 5곳을 추가해 총 9개소로 확대하고, 이 곳에 지역경찰과 형

사, 방범순찰대, 자치경찰 등 총 61명을 투입, 외국인 흉기소지 의심자와 거동 수상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합동단속팀도 기존 27명(경찰 12명·출입국외국인청 15명)에서 59명(경찰 44명·출입국외국인청 15명)으로 증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외국인범죄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 받아 순찰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치안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적 취득 등의 문제로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통역사 140여명을 동원해 24시간 상담·지원이 가능한 체계도 구축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함께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도민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명별 이겨내는 횡단보도 그늘막 30℃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31일 제주시 연동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에 행인들이 모여 강한 명별을 피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

이달부터 승용차 4만→8만원·승합차 5만→9만원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3개월간 2588건 접수

8월 1일부터 소화전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가량 인상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적발 기준은 소방시설 5m 이내 연

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현재 이러한 빨간색 표시를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상황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만 해당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난 4월 17일 신고 접수가 시작된 이후 7월 23일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2588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1627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정류소 388건(14.9%), 교차로 모퉁이 363건(14.0%), 소화전 210건(8.1%)이었다.

송은범기자

응급실 난동 60대 실형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B(31)씨를 폭행하는 등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고교 남학생 사흘째 행방 묘연

제주에서 10대 남학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표선고등학교 2학년 유동현(18·사진)군이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유군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유군은 이날 오후 4시쯤 할머니 심부름을 받고 집을 나간 뒤 오후 6시50분쯤 성읍2리 마을 소재 한 카



페의 CCTV에 표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촬영됐다.

키 175cm에 체중 55kg의 마른 체형인 유군은 실종 당시 파란색 반팔티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검정색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유군은 실종 당시에는 미착용 상태였으며 투블럭머리가 특징이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표선파출소(064-787-0112), 표선고등학교(064-786-5500)로 하면 된다.

표선초기자 sipyo@ihalla.com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공모전

9월 10일까지 접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020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사진과 슬로건 분

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접수는 5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사진공모전은 ‘추억이 담긴 한라산 옛 사진’의 경우 한라산의 옛 풍경과 자연생태, 이를 배경으로 한 인물사진 중 1990년 이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대상이다.

‘아름다운 자연생태 및 경관사

진’은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품은 사진이면 가능하다.

‘한라산을 상징하는 슬로건’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의미 전달과 홍보, 행사,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면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비자림로 공사 중단하고 즉각 정밀조사 실시하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자체 조사를 통해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고 판단, 업체에 행정처분 내용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부실과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환경영향평가서에 단지 ‘부실’ 부분만 책임을 묻는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판정되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지난 6월 비자림로 정밀조사에 참여한 김중원 계명대 교수와 조류 조사에 참여한 나일무어스 박사 역시 조사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이 명백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며 “그리고 제주도는 부실로 드러난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하고 4개월 정밀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크루즈포럼 참여업체 모집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8~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비즈니스 미팅과 전시에 참여할 업체를 2일까지 모집한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업체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도내 업체에게 해외 선사·여행사와의 사업 또는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래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 흑염소 먹이물이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제주 최대 편백 숲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술불구이 / 떡갈비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805.5099

T. 064.764.6678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